

“외로운 작업 속 자유로운 시간”

배우 문근영 영화감독 데뷔

부천국제영화제서 단편 상영

“처음에는 연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다들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열광하고 감사해요.”

배우 문근영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지난 10일 오후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는 경기 부천시의 한 영화관에서 그가 연출한 단편 세 편이 처음으로 상영됐다. 문근영은 상영 이후 관객들과 대화 자리에서 “겁이 나고 무섭다”면서도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연기생활 24년 차인 문근영이 영화감독으로 나선 건 지인들과 바치 창작집단을 꾸리면서다. 문근영은 “작정하고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 일은 아니다”라며 “감독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날 상영된 연출작은 ‘심연’과 ‘현재진행형’, ‘꿈에 외취’ 등 러닝타임 9~15분짜리 작품이다. 모두 대사 없이 배우 표정과 몸짓, 음악과 조명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다.



문근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공

수중촬영으로 구성된 ‘심연’에서는 문근영이 유일한 등장인물인 ‘여자’를 직접 연기했다. 여자는 아무리 해염을 쳐도 물 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끝이라고 여긴 곳에 닿아도 또 다른 수렁에 갇히고 만다.

흑백에 가까운 톤으로 촬영한 ‘현재진행형’은 무대를 벗어나고 싶어도 결국 무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 배우의 이야기다.

‘꿈에 외취’는 연인 사이의 감정을 현대무용에 가까운 퍼포먼스로 묘사한다.

문근영은 “첫 작품을 물 속에서만 촬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사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작품들도 대사가 없어졌다”며 “표정과 움직임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멤버들이 만든 작품이어서 그 나이에 가질 법한 고민과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고 위로하는 결말을 생각했어요.”

세 작품에는 혼란과 좌절, 상실감과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교차한다. 문근영은 특히 빛을 표현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어둡고 갑갑하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빛을 희망 같은 존재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온전히 살아있으면 빛도 어둠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배우가 느끼는 압박감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문근영은 “연기와 달리 연출은 혼자서 판단을 빠르게 내려야 했다”며 “감독은 정말 외로운 직업이라고 느꼈지만 자유롭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퀴어 콘텐츠, 웹툰에서 예능까지 확장

개방적 사회변화 영향

성소수자의 사랑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가 웹툰, 드라마 포맷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11일 방송가에 따르면 OTT 플랫폼 웨이브는 성 소수자 커플의 이야기를 그린 ‘메리 퀴어’에 이어 솔로 남성들의 연애 리얼리티 ‘남의 연애’를 공개한다.

‘메리 퀴어’는 당당한 연애와 결혼을 향한 성 소수자 연인들의 도전기를, ‘남의 연애’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해 사랑을 찾는 다섯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성소수자를 소재로 한 콘텐츠의 초기 모습은 ‘19금 로맨스’ 성격을 띠었다. 그렇다 보니 BL 웹툰·웹소설은 소수 마니아층에 의해 읍지에서 소비돼왔다.

그러나 마니아층의 수요를 겨냥한 OTT 플랫폼들이 성소수자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BL은 더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왓차 오리지널 시리즈 ‘시맨틱 에러’가 대표 사례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시맨틱 에러’는 원작의 성적 판타지를 덜어내고 풋풋

한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일반 시청자층에 친숙하게 다가갔다. 그 결과 첫 회 공개 후 8주 연속 왓차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시맨틱 에러’ 외에도 웹드라마 ‘블루밍’·‘수업중입니다’ 등 작품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하재균 문화평론가는 “BL은 일종의 ‘꽃미남 종합세트’로 여성들의 이성애적 판타지를 충족한다”면서 “BL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우리나라가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난 8일 공개를 시작한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메리 퀴어’는 성소수자 커플 세 쌍이 출연해 일상을 공개한다. MC를 맡은 홍석천, 신동엽, 하니도 웃음보다는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웨이브는 15일 연애 리얼리티 ‘남의 연애’ 공개도 앞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력적인 솔로 남성들이 셰어하우스에 입주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예능으로, 성소수자들의 연애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숙 “힘닿는 데까지 목욕차 기부”

2004년부터 19년째 선행

‘호녀 가수’ 현숙이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차량 기부를 19년째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현숙은 지난 10일 전북 진안군에 5,000만원 상당의 이동식 목욕 차량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현숙이 목욕 차량을 기부한 것은 18번째다.

그는 2004년 고향인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2019년 경남 산청군에 17번째 차량을 기부했다.

현숙은 그간 목욕 차량을 기부하고 현장 목욕 봉사도 펼쳐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차량만 기부했다.

현숙은 특히 지난 4월 진안 홍삼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 이를 통해 받은 광고료로 목욕 차량을 구매해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줬다.

현숙은 “한 해 한 해 어르신이 많은 지역에 목욕 차량을 드리며 성취감에 일을 열심히 왔는데 최근에는 숙제를 못 한 느낌이였다”고 오랜만에 기부를 재개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래를 얼마나 할지, 몇 대



현숙 /연합뉴스

를 더 기증할지 모르겠지만 힘닿는 데까지 하려 한다”며 “그동안 기부를 이어오지 못했는데 다시 목욕 차량을 기증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하이브 소속 가수 상반기 음반 판매 1천만장 넘어

BTS ‘프루프’ 차트 정상

하이브 레이블즈가 올해 상반기 소속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씨클차트의 2022 상반기 음반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은 8월 기준 총 1,060만 4,142장으로 집계됐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12개 음반을 합쳐 426만 7,736장을 판매했다. 지난달 발표한 ‘프루프’(Proof)는 총 295만7,410장이 팔려 차트 정상에 올랐다. 세븐틴이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었다. 정규 4집 ‘페이스더선’(Face the Sun)이 총 237만3,052장(위버스 판매분 제외)이 판매돼 차트 2위를 차지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미니 4집 ‘미니소드 2: 서스테이스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를 165만 263장 판매해 차트 5위를 기록했다.

엔하이픈은 지난 1월 발매한 정규 1집 리퍼키지 음반 ‘디멘션 : 앤서’(DIMENSION : ANSWER)가 76만2,823장이 판매돼 9위에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올랐다.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은 지난 1월 발매한 미니 4집 ‘미드나잇 게스트’(Midnight Guest)가 14만1,375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4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7일 나온 미니 5집 ‘프롬 어워 메멘

토 박스’(from our Memento Box)는 13만 7,232장의 판매량으로 44위에 올랐다. 하이브 레이블즈의 막내 걸그룹 ‘르세라핌’은 ‘피어리스’(FEARLESS)로 41만5,654장을 판매해 음반 판매량 17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통합뉴스룸 11:20 이슈 픽 쌤과 함께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한 아침 1부 8:10 해 불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미남당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꾸러기 식사교실 11:15 헬로키키 체육교실 11:45 프렌세스 바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롱뽀롱 뽀로로 7:15 우당탕탕 은하인전단 8:00 당당명 유치원 8:20 한글왕사 이야기 9:0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9:20 꼬마버스 타요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건축탐구-집 1:50 EBS 다크프라임 2:45 바닷가 사람들 3:35 이웃의 반란 아귀잡이 3:35 안전채널e 4:05 영어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5:45 출동! 슈퍼워즈 6:00 생방송 뚝딱지 해결단 6: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7:30 한국의 둘레길 7:50 극한직업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크프라임 10:45 건축탐구-집 11:35 클래식e
12:00 통합뉴스룸 1:00 세상다반사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통합뉴스룸 2:10 생로병사의 비밀 3:00 불면해도 괜찮아 3:05 동행 4:00 사사건건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2:15 개는 훌륭하다 1:50 황금가면 3:00 KBS 뉴스타임 3:10 갤럭시 키즈 3:30 TV 유치원 4:00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0 같이 삽시다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결혼지옥 스페셜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좋아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호적메이트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돌싱포맨 2:00 뉴스브리핑 4:00 좋은아침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TV 동물농장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이웃집 찰스 8:30 오라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사사건건 10:50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같이 삽시다 9:50 미남당 11:00 오케이!오케이!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호적메이트 10:30 PD수첩 11:30 100분 토론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세상에 이런일이 10:10 돌싱포맨 11:30 DNA 싱어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행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7월 12일 (음력 6월 14일)
 子 84년생 어슬픈 치방은 화를 부른다.	48년생 희망과 행복이 넘쳐난다. 60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72년생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丑 어 보라. 85년생 노력하면 된다.	49년생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61년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73년생 결전의 순간이 왔으니 승부를 걸어 보라. 85년생 노력하면 된다.	
 寅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다.	50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다. 62년생 부부간에 도의리는 있어야 한다. 74년생 원대한 뜻을 펼칠 적절한 기회를 노려라. 86년생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다.	
 卯 드디어 진검승부를 펼칠 때가 왔다.	51년생 사랑한다면 용서하라. 63년생 효자보다 악처가 오히려 낫다. 75년생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87년생 드디어 진검승부를 펼칠 때가 왔다.	
 辰 했던 중요한 문서를 손에 쥐겠다.	52년생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64년생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라. 76년생 되도록 주교 말로 받는다. 88년생 원했던 중요한 문서를 손에 쥐겠다.	
 巳 7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41년생 기쁜 소식이 있겠다. 53년생 절대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라. 65년생 평온한 일상 속에 행복과 웃음이 있다.	
 午 남았다. 78년생 꿈은 이루어진다.	42년생 계약이 성사되거나 목표를 달성한다. 54년생 참고 노력하면 반드시 길하다. 66년생 어려움은 가고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78년생 꿈은 이루어진다.	
 未 43년생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가 와도 두렵지 않다. 55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린다. 67년생 내 일이 아니라면 참견하지 말라. 79년생 친구와 다룰 수 있다.	43년생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가 와도 두렵지 않다. 55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린다. 67년생 내 일이 아니라면 참견하지 말라. 79년생 친구와 다룰 수 있다.	
 申 조심하고 늦은 약속은 피하라.	44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56년생 모진 눈 옆에 있다구 벼락을 맞는다. 68년생 좌충우돌하는 날이다. 80년생 밤길 조심하고 늦은 약속은 피하라.	
 酉 없고 사람 잃는다.	45년생 순풍에 돛 단 듯하다. 57년생 죽어 석 잔 술이 살아한 잔 술만 같지 못하다. 69년생 희생 없는 성공은 없다. 81년생 돈 잃고 사람 잃는다.	
 戌 생 재주를 발휘하고 인기를 얻는다.	46년생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58년생 영원히 지켜지는 비밀이란 없다. 70년생 행운이 발동하는 길이다. 82년생 재주를 발휘하고 인기를 얻는다.	
 亥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	47년생 횡재수가 있겠다. 59년생 작은 오해가 큰 사뭇거리가 된다. 71년생 음식이 양지되는 날이다. 83년생 수고는 많지만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	